김 일 성

조국통일 5 대방침에 대하여

전세계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김 일 성

조국통일 5 대방침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73 년 6 월 25 일

우리는 이틀전 6월 23일에 한 연설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5대방침을 새로이 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설은 세상에 발표된 첫날부터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5대방침을 열렬히 지지환영하고있을뿐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정부와 인민들속에서 이 방침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체스꼬슬로벤스꼬 당 및 정부대표단은 우리가 조국통일5대방침을 발표한 즉시로 그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뒤이어 여러 나라들에서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5대방침을 지지하는 립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신문, 통신, 방송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5대방침을 널리 소개하고있으며 그것을 환영하는 론평도 많이 발표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국통일5대방침을 새로이 내놓은것은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른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됩니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에도 민족분렬책동을 계속하여왔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두개 조선》을 조작해보려고 남북대화의 막뒤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을 분렬행동에로 끊임없이 부추겨왔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서 남조선이 《힘의 립장》에 서도록 하여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남조선에 새로운 군사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였으며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전쟁연습소동을 그칠사이없이 벌렸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도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장단을 맞추면서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방해하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 막는 행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결국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남조선을 자기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상품시장으로 만들자는것입니다.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공공연히 짓밟고 통일이 아니라 분렬의 길로 계속 나갔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더욱더 외세에 매여달렸으며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을 부르짖으면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

치상태를 해소하며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자는 우리의 제의를 다 거부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침략적도발행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반공》소동을 계속 벌렸으며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입으로는 통일에 대하여 떠들어댔으나 실지행동에서는 분렬을 고착시키고 영구화하기 위한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미쳐날뛰였습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각방으로 추진시켜오던 남조선당국자들은 드디여 지난 6월 23일 오전에 《특별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여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할데 대한 《정책》을 공공연히 세상에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이른바 《특별성명》에서 내세운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나라가 분렬된 상태에서 북과 남이 따로따로 유엔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반민족적인 주장입니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둘로 갈라지게 될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은 영원히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노예로 남아있게 될것입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조선당국자들이 감행한 민족분렬영구화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국이 조성되였습니다.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들고나온 반민족적인 주장을 제때에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온 민족앞에 조국통일의 확고한 전망과 뚜렷한 방도를 제시하는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6월 23일 오후에 새로운 구국대책으로서 조국통일5대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5대방침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그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무엇보다먼저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시자는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시는것은 현시기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호상 리해와 신임을 두터이하며 민족적대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긴절하고도 관건적인 문제입니다.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있는 그자체가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오해와 불신을 낳는 근원으로 되고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풀려야만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와 불신임을 없애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으며 호상 신뢰의 기초우에서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습니다. 속에 칼을 품고 평화통일을 하겠다고 하며 대화를 한다는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속에 품고있는 칼을 내놓지 않고서는 서로 믿음의 분위기를 마련할수 없으며 북과 남사이의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의 통일과 관련된 크고 작은 어떤 문제도 원만히 풀어나갈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5개 항목의 제안을 여러차례에 걸쳐 남조선당국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이 긴절한 문제를 뒤로 미루고 부차적문제들이나 이러저러한 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해결하자고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호상 신임을 두터이하고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자는것이 아니며 민족분렬의 쓰라린 상처를 그대로 두고 나라의 분렬을 유지하며 고정화하자는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참말로 평화통일을 바라고 통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러한 립장을 버리고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는 길로 나와야 할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주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북과 남사이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자는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는 끊어졌던 민족적뉴대를 다시 잇고 통일의 전제조건을 마련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가 실현되여야 북과 남사이에 맺게 될 평화협정도 보다 공고히 할수 있을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말로는 서로 사회를《완전히 개방》하자고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남북간의 온갖 장벽을 무너뜨리는것을 두려워하고있으며 남북간의 교류와 합작을 극력 반대하고있습니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동족끼리 합작하는것이 아니라 외세와 결탁하고 외래독점자본을 제한없이 끌어들여 남조선경제를 완전히 예속경제로 전변시키고있으며 심지어 외국에서도《오물단지》로 배척당하고있는 공해산업까지 끌어들여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더럽히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족적량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있다면 마땅히 우리 나라의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우리 민족에 리롭게 경제를 발전시키며 모든 분야에서 민족적합작을 실현하는데로 나와야 할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주장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자

는것입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북과 남의 당국자들의 범위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진행되여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북반부의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청년학생, 병사들과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과 같은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고 여기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광범히 협의하여 해결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주장은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를 실시하자는것입니다.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에는 물론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현 조건에서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고 민족적단결을 이룩한데 기초하여 북과 남에 현존하는 두 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두고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될것입니다.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련방국가의 국호는 우리 나라의 판도우에 존재하였던 통일국가로

서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고려라는 이름을 살려 고려련방공화국이라고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이것은 남북쌍방에 다같이 접수될수 있는 좋은 국호로 될것입니다.

고려련방공화국의 창설은 나라의 분렬을 막고 북과 남사이의 련계와 합작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완전한 통일을 앞당기는 길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될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주장은 분렬이 고착되여 우리나라가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지는것을 막고 대외관계분야에서도 북과 남이 공동으로 나가도록 하자는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관계를 발전시키고있지만 이것을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데 리용하려는 온갖 책동을 견결히 반대하여야 합니다.

유엔에도 북과 남이 각각 들어가서는 안되며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엔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련방제라도 실현된 다음 고려련방공화국의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유엔가입문제와는 달리 유엔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상정되여 토의되는 경우에는 마땅히 우리 공화국대표가 당사자로서 거기에 참가하여 발언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온 하나의 민족으로서 결코 둘로 갈라져 살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5대방침이 실현된다면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의 공통된 념원에 맞게 평화적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는데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조국통일5대방침이 발표됨으로써 조선에서 누가 진정으로 분렬을 반대하고 통일을 원하며 누가 통일을 반대하고 분렬을 추구하는가 하는것이 더욱 명백하여졌습니다. 세상사람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념원에 맞게 민족의 영구분렬을 방지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는 반면에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며 조선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고 책동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가 조국통일5대방침을 발표한것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에 대한 커다란 타격으로 되였습니다. 우리의 조국통일5대방침이 발표됨으로써 남조선당국자들의 이른바 《특별성명》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된서리를 맞았으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평화통일》의 간판뒤에서 꾸며오던 온갖 교활한 음모와 술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였습니다.

우리의 조국통일5대방침은 날이 갈수록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을것이며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당국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은 세계인민들로부터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받으리라는것은 의심할바없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5대방침은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며 그것을 실현하는것은 온 민족의 공통된 지향과 념원에 맞게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조국통일5대방침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조국통일5대방침을 남북조선 전체 인

민들속에 널리 해설선전하며 그들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조국통일5대방침을 대외에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똑똑히 알도록 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고 동정하는 사람들의 대렬을 끊임없이 늘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조국통일5대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전적으로 정당한것입니다. 정당한 기발을 들고 정의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은 반드시 승리하는 법입니다. 오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의 앞길에 비록 커다란 장애와 난관이 가로 놓여있으나 남북조선인민들의 용감한 투쟁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에 의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영구분렬책동은 저지파탄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것입니다.